

中 내년부터 706개 수입제품 관세 조정

1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취소



중국 재정부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706개 수입 제품에 대한 잠정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24일 공식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조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 과정 상의 제도적 완화를 줄이며 공급측 구조개혁에 힘을 보태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700여 가지의 수입 제품에 대한 잠정 세율을 실시한다. 새로 추가된 자포(杂粕) 및 일부 약품 생산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실시하고 면화 활준

세(滑准税, 수입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와 일부 수입 포피 잠정 세율은 인하된다.

또, 망간 찌꺼기 등 4종 고체 폐기물을 비롯한 연화 티 오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업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최혜국 세율을 회복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국내 발전이 시급한 항공엔진, 자동차 생산 라인 용접 로봇 등 선진 설비, 천연 사료, 천연 우라늄 등의 자원성 제품에도 보다 낮은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출 관리 시스템의 개혁 요구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자원 산업의 구조 조정, 품질 개선 및 효율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비료, 인화석, 철광석, 슬래그, 폴타르, 목재 펄프 등 94개 품에 대해 더 이상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 국가들과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국가 간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중국은 2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협정 세

율을 적용한다. 이중 중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호주, 한국, 조지아 자유무역 협정 및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의 관세는 더욱 인하될 방침이다.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간 체결된 상품 무역 협정에 따라, 홍콩·마카오에서 생산된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전면 무관세가 실시된다. 또, 최혜국 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항목에 포함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 양국은 특혜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내년 7월 1일부터 중국 당국은 298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네 번째 단계의 감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부 정보 기술 제품의 잠정 세율은 이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관세 조정으로 국내·국제 시장과 두 자원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 국내 관련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고 개방적인 협력을 촉진하며 개발 결과를 공유, 중국 대외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해년 새해인사

교민들과 소통하고 합심하는 2019년



존경하는 재외국민,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2018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

습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올해 2019년 황금돼지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2019년에도 재외국민, 기업인들 여러분들과 더욱 열심히 소통하고 합심하여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여권, 공증 등 우리국민들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뿐 아니라 즈푸바로도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외국민이 사용하고 계신 위챗에 총영사관의 공중하오를 개설하여 교민사회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재외국민들께서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 총영사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2019년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다양한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교민사회와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中 '외상투자법'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상투자 감독 간소화 방안 포함

중미 무역 및 기술 분쟁의 핵심 이슈였던 '기술이전 강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각 지방정부에게 외자기업의 기술이전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 정부는 외자기업의 기술을 중국 합작 파트너에 강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사 보도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현행 외자 진입 산업 범위 및 진입조건의 법률 제도 시스템을 간소화된 외상투자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외자기업은 중외합작기업의 형식으로 영

업을 하도록 요구 받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중국측 합작 파트너에 이전해야 했다. 이후 일부 중국측 합작사는 모기업을 통해 외국투자자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 외상투자법 초안은 외상투자 과정에서 기술 '합작'의 조건을 투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 및 관료는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강제해선 안된다.

애널리스트는 "외상투자법 초안은 외상투자자의 촉진과 보호를 위한 것이며, 외상투자 기업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 중국 시장에서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는 "중국은 종종 비공식적 수단으로 외자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기술 이

전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외상투자법 초안은 강제 기술이전 금지 외 외상투자 감독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는 중외합자 경영기업, 중외합자 경영기업 및 외상투자 기업의 '외자3법'을 대체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는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을 처음 심의했다. 이 회의는 두 달에 한번 열리는데,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에서 수 차례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 전체 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 따라서 법안이 완성되기까지는 수 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전통 중의학 연구자들이 함께합니다

상해정지당중의원



1 개원 기념 이벤트 증정!
• 몽고 약육요법 체험권 1장
• 물리치료 100원권 1장



김승겸 중의학박사

내과

어린이성장발육, 부인병, 갱년기증후군, 전립선 등 내과 질환 성장종명탕, 피로회복공진단, 수험생총명공진단

경추·어깨·척추·다리통증학과

디스크, 관절염, 근육통, 오십견 테니스엘보 등

몽고 전통 약육 요법

관절염, 경추, 어깨, 허리 통증, 통풍 불면증, 피부관리, 다이어트 등

비염과

과민성비염, 만성비염 부비강염, 코골이, 호흡불안

피부과

미용 및 각종 피부질환

上海市闵行区合川路2880号亲水花街二期3层 | 예약문의 150 2210 7718 (김승겸 박사) / 021 3166 3222 / 182 2111 8776